

# 아스페르질루스종으로 오진된 수술 후 남겨진 폐내 거즈

- 1예 보고 -

오재윤\* · 신화균\* · 원용순\* · 이재욱\* · 양진성\*

## A Forgotten Surgical Gauze after Surgery that Mimicked Aspergilloma

- A case report -

Jae Yun Oh, M.D.\*, Hwa-Kyun Shin, M.D., Ph.D.\*, Yong Soon Won, M.D., Ph.D.\*,  
Jae Wook Lee, M.D.\*, Jin-Sung Yang, M.D.\*

A 55-year-old male presented with intermittent cough and blood-tinged sputum. 35 years earlier in the Army Armed Forces, he had undergone lung surgery of the right upper lobe because of tuberculosis. Chest CT showed a mass-like lesion with an internal air-meniscus sign in the right lung. The mass was 5×7 cm in the right upper lobe and it was a well marginated lesion. The resected mass contained a foreign body, that is, a retained surgical gauze. Herein we report on a rare case of retained gauze after surgery that mimicked aspergilloma.

(Korean J Thorac Cardiovasc Surg 2007;40:590-592)

**Key words:** 1. Foreign body  
2. Lung surgery

### 증 례

55세 남자환자가 간헐적인 기침과 피가래 등의 증상으로 개인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증상이 심해져 본원으로 전원되었다. 환자는 과거에도 가래와 기침이 자주 발생해 자주 개인병원에 가서 치료받았으며 내원 약 3개월 전부터 1주일에 2~3차례 객혈이 있었으며 내원 이후부터는 증상이 심해졌다고 한다. 과거력상 35년 전 폐결핵으로 군대에서 우측 상엽 절제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그 외 특이소견은 없었다. 전신상태는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었으며, 이학적 검사상 활력징후는 정상소견이었다. 우측 가슴에 후측방 개흉술의 흔적으로 보이는 수술반흔이 있었다. 검사실 소견으로 백혈구 10,200/uL, 혈색소는 15.5 gm/dL, 혈소판은 203,000/uL이었다. 그 외 다른 검사소견은 정상 범위 내의 수치를 보였다. 객담검사에서도 특별

한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단순 흉부방사선 사진에서는 우측 상부에 결절이 보였으며 5번째 늑골 결손이 관찰되었다.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에서는 우측폐 내측부위에 공기-초승달 징후를 포함하는 종괴가 관찰되었다(Fig. 1). 종괴에 대한 경피적 바늘생검을 시행하였고 만성 염증소견 이외에는 특별한 소견은 없었다. 아스페르질루스종의 진단하에 흉부외과로 전원되었다. 전신마취하 과거의 수술 부위로 후측방 개흉술을 시행하였다. 폐와 흉막 사이의 유착이 심하였다. 환자는 우측 상엽절제술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우측 상엽이 남아있었고 내부에 5×7 cm 크기의 종괴가 만져졌다. 종괴는 단단하고 주위와의 경계가 분명하였다. 조직검사를 위하여 종괴를 폐쇄기절제술로 제거하여 병변을 잘라보자 내부에 수술 시 사용하는 거즈가 매몰되어 있었다(Fig. 2). 수술 후 지속되던 기침과 객혈은 사라졌고 12일째 퇴원하였다. 이후 외래에서 추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천병원 흉부외과학교실

Department of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 Bucheon Hospital, Soonchunh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논문접수일 : 2007년 4월 30일, 심사통과일 : 2007년 5월 15일

책임저자 : 신화균 (420-767)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74,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흉부외과

(Tel) 032-621-5303, (Fax) 032-621-5016, E-mail: chest@schbc.ac.kr

본 논문의 저작권 및 전자매체의 지적소유권은 대한흉부외과학회에 있다.



Fig. 1. Chest CT showing mass-like lesion with internal air-menisiscus sign in the right lung.

적관찰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특이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 고 찰

수술 중 체내에 남겨진 이물질 중 가장 흔한 것이 거즈다. Gawande 등[1]은 수술 후 이물질을 체내에 남겨두는 위험인자로 응급수술, 예정에 없던 수술방법의 변경 및 비만환자에서 위험도가 높다고 하였으며, 발생빈도로는 수술 8,801~18,706건당 1례라고 보고하였다. Kaiser 등[2]은 이물질의 잔류부위로 복부와 골반이 54%, 질속이 22%, 흉강이 7%, 기타(척추간, 안면부, 뇌, 사지) 17%이며, 잔류 이물질의 종류는 거즈가 69%, 수술기구가 31%라고 보고하였다. Coskun 등[3]은 잔류이물이 진단적 어려움은 이물질 주위의 섬유성 반응과 임상증상의 결여가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하였으며, 진단방법은 컴퓨터 단층촬영상 종괴와 벽사이에 저밀도 음영으로 조영되는 병변이 있을 때 의심할 수 있다고 하였다. Dhillon 등[4]은 수술후 체내에 남은 거즈는 환자의 1/3에서 별다른 증상 없이 경과하고, 단순 방사선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수술 중 쓰이는 거즈는 체내에 남겨졌을 때, 분해되거나 어떤 의학적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이물에 대한 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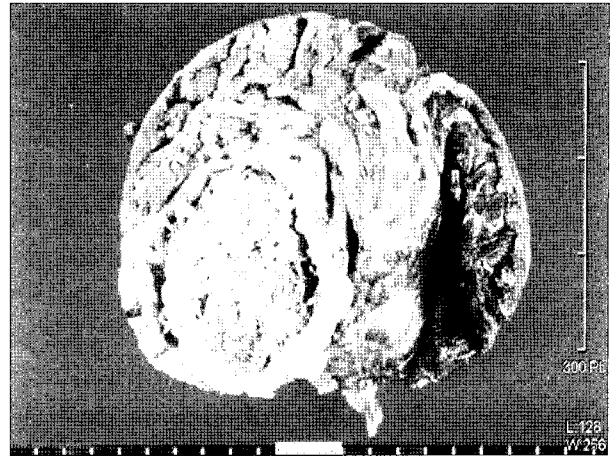


Fig. 2. The foreign body (gauze) was impacted on remnant RUL.

내의 반응으로 주위 유착이나, 이물육아종, 누공 등을 형성할 수가 있다. 감별해야 할 질환으로는 폐농양, 농흉, 아스페르질루스종, 침습형의 진균감염 등이 있다. 수술이 예상보다 길어지거나 어려워지면서 외과의사를 포함한 수술에 참여한 사람들의 집중력 결여로 거즈나 수술기구의 계산이 틀려질 수가 있는데, 정확함과 세밀한 주의만이 이러한 오류를 피하고, 환자의 건강과 의료비용절감 차원에서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폐내에 남겨진 거즈의 경우는 드문 경우로써 아스페르질루스종으로 오진된 폐내 잔존거즈를 체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 참 고 문 헌

1. Gawande AA, Studdert DM, Orav EJ, Brennan TA, Zinner MJ. Risk factors for retained instrument and sponges after surgery. *N Engl J Med* 2003;348:229-35.
2. Kaiser CW, Friedman S, Spurling KP, Slowick T, Kaiser HT. The retained surgical sponge. *Ann Surg* 1996;224:79-84.
3. Coskun M, Boyvat F, Agildere AM. CT features of a pericardial gossypiboma. *Eur Radiol* 1999;9:728-30.
4. Dhillon US, Park A. Transmural migration of a retained laparotomy sponge. *Ann Surg* 2002;68:603-5.

=국문 초록=

55세 남자환자가 간헐적인 기침, 피 섞인 가래를 주소로 입원하였다. 35년 전 그는 군대에서 결핵으로 인해 우측 상엽절제술을 받았다.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에서는 우측폐의 내부에 공기-초승달 징후를 포함하고 있는 종괴가 보였다. 우측상엽에 5×7 cm 크기의 종괴가 있었고, 경계가 분명하였다. 제거한 종괴를 살펴보니 이물질(거즈)을 포함하고 있었다. 저자들은 아스페르질루스종으로 오진된 폐내 잔존거즈를 체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중심 단어 : 1. 이물질  
2. 폐수술